“앞치마 두르면 나도 味男”

〈미남〉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요리 배우는 남자들

아버지 요리교실 최고 인기
요리는 고령화시대의 필수
눈칫밥 먹기 이제는 그만
“며느리에 요리솜씨 뽐내요”

김승현(70)씨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다. 아내가 투병할 때 자기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 그는 또래 여느 남성들처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는 고지식함으로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그가 요리교실에 다니고 있다.

김씨는 지난 27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전복죽을 만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씨는 “진작 요리를 배워 누워있는 아내한테 정성이 깃든 밥상을 차려주지 못한 걸 후회 한다”고도 했다.

요리를 배우는 노인 남성들이 늘고 있다. 라면 끓이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음식이 없던, 식사할 때 ‘폼’만 잡던 노인들이 부끄러움도 잊고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교실에서 음식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서툰 칼질에 손을 베여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랜 칼질에 손목이 시리고 아파도 배우는 얼굴엔 진지함이 가득하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요리교실’ 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남성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강좌 중 하나다. ‘남성 시니어’ 사이에 요리 배우기 붐이 일면서 2년 전 첫 강의를 시작한 뒤 수강생들이 줄을 섰다. 30명의 노인 수강생들이 매주 한 차례, 두시간씩 4개월 동안 기초부터 고급 요리까지 배우는 과정을 배운다.

이들 외에도 “자리만 있다면 꼭 배우고 싶다”며 대기자로 등록,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만 10명이 넘는다. 수강생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온 65세 이상 노인들이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쫌팽이” 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단언한다. 이들에게 요리는 그야말로 삶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요리교실 은순덕(여·62) 강사가 전복·양파 등 재료를 다듬는 동안에도 희끗희끗한 노인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아버지 요리교실 수강생들이 지난 27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은순덕 강사의 지도 아래 전복죽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연도 가지가지다. 간 큰 ‘삼식이’(백수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사람)가 되지 말자는 소박한(?) 소망에서부터 한두 가지 반찬으로 혼자 심심하게 먹는 밥, 기왕이면 즐기면서 먹자거나 아내의 죽음 이후 부엌일을 통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등 다양하다.

김현수(73)씨는 2년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요리를 배운다고 했다. 김씨의 아내는 뇌병변 장애 3급이다.

김씨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불낙’인데, 내가 만든 요리를 아내가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정길(65)씨는 평생 함께 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낸 뒤 부엌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 생전 들어가지 않던 부엌에서 주섬주섬 먹을 것을 대충 먹는 것도 그렇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사먹는 게 싫어서였다. 박씨는 “이젠 자녀와 며느리에게도 내 요리 솜씨를 뽐낼 정도다”라고 자랑했다.

고령화 시대, 이들 은퇴자들에게 부엌일은 홀로서기의 첫 걸음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 ‘검은 비’ 원인은 폐기물 매립장의 분진

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 여수 ‘검은비’ 분석결과 (국립환경원)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내렸던 ‘검은 비’〈광주일보 6월 13일 6면〉는 인근 율촌산단 내 한 폐기물 매립장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11일 여수시 율촌면 일대에 내린 검은 비와 관련, 피해 지역에 내린 분진 성분, 대기이동경로 분석, CCTV, 사고 당일 주민 제보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 지역 인근 율촌 산단에 위치한 H사 폐기물 매립시설이 유력한 발생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H사는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검은색 먼지가 치솟았다고 주민이 제보한 시설이기도 하다.

환경과학원 등은 검은 비 사고 이후 차례에 걸쳐 검은비 피해지역(4건)과 H사(4건), 율촌 제1산단 내 7곳 사업장(12건) 등에서 20건의 시료를 채취, 분석해 H사 매립지 내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구조가 피해지역 시료 성분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지역에 떨어진 분진과 H사 매립지 내 시료가 제철·제강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환경과학원 등은 아울러 대기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분석한 결과, H사의 제철·제강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당시 초당 4.2m로 불던 동풍을 타고 1.5㎞ 동쪽에 떨어진 율촌면 조화리 일대로 퍼져 비와 함께 낙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검은 비가 내리던 지난 11일, H사가 율촌산단내 한 조선 업체에서 의뢰한 폐기물 11t~15t 가량을 매립한 점 등을 토대로 작업 과정에서의 허술한 처리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 매립회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매립장 주민감시원제도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분진이 떨어진 지역의 농작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잔류량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과속단속 공무원 차 치여 숨져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적단속을 하던 국토교통부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오후 5시40분께 나주시 영산포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모(43)씨가 화물차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고씨는 화물차 과적 단속을 하다가 후진하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귀가 20대 여성 납치 돈 빼앗은 2명 영장

목포경찰은 지난 30일 심야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강모(27)·김모(27)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7일 새벽 3시30분께 목포시 상동 원룸 밀집지역에 사는 A(여·21)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시간 동안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교 동창인 이들은 며칠 전부터 이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 A씨 귀가 시간을 미리 파악해놓고 A씨가 거주하는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교통사고 많은 금호육교 철거 육교 이용을 꺼리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이 된 광주 금호동 금호육교가 지난 30일 새벽에 철거되고 있다. 철거 후에는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칠나무 진짜 주인은 누구?

구입자 계약기간 넘기자 다른사람에 판 교수 입건
동의 없이 팔면 절도혐의

황칠나무 2500그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자신의 밭에 심은 황칠나무 구입자가 계약 기간이 넘도록 가져가지 않는다며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치운 대학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전남 모 대학 교수 A씨는 지난 2월 18일 완도군 고금면 자신의 밭(1983.4㎡·600평 규모)에 심은 황칠나무 2500그루를 중간유통업자 B씨에게 248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생산량은 경찰 추산 대략 6.2t. B씨는 사들인 황칠 나무를 김제의 한 건강원에 의뢰해 즙을 냈고 이후 제약업체에 넘겼다.

하지만 D씨가 황칠 나무 실소유주라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교수가 2년 전 C씨에게 1200만 원을 받고 판 황칠나무를 D씨가 C씨에게 6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A씨가 임의로 B씨에게 팔아 치웠다는 것이다.

A 교수는 D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캐가도록 명시했는데도, D씨가 가져가지 않아 B씨에게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소유자가 계약 기간이 지나도록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팔았다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완도경찰은 A교수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생산량 등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갈치 맞다니까!” 손님 폭행

쌍나팔

○…자신의 가게에서 팔려고 내놓은 생선이 “목포갈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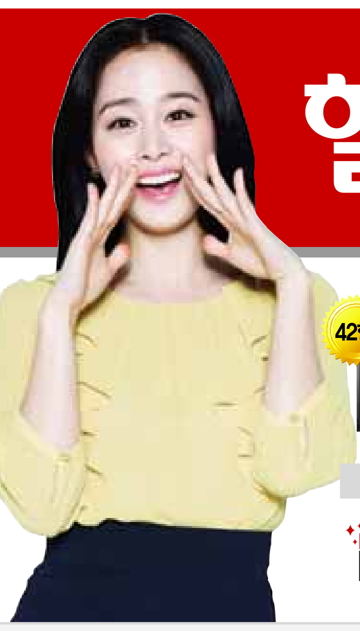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8)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내 자신의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러온 이모(45)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가게 진열대에 진열해놓은 갈치를 “목포갈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홧김에 폭행 했으며, 경찰에서도 “목포갈치가 맞다”며 항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CJ 헬로비전 hello tv

헬로tv 가입 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 LED TV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980,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가)

23형 LG LED TV 모니터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2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광시야각 IPS패널의 Full HD LED TV
LED TV의 뛰어난 에코 절전 기능
헬로tv의 다양하고 즐거운 서비스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주1)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주2)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3,088,800원	2,431,440원	13%↓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1,176,120원	788,040원	26%↓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427,680원	364,320원	6%↓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332,640원	253,440원	16%↓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